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신지애 '상큼한 출발'

신지애가 10일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대회 첫날 16번 홀(파3)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6언더 단독 선두…'코스레코드 타이'

함평다이너스티CC서 열린 KB 스타투어 2차 대회 1R

'시즌 2승은 고향에서!'

함평골프고 출신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애(19·하이마트)가 올들어 세 차례나 계속됐던 '1라운드 부진' 징크스를 떨쳐내며 고향에서 시즌 두번째 우승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신지애는 10일 4계절 양잔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파72·6천276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6개를 솎아내는 완벽한 경기를 펼치며 단독선두에 올라 고향팬들을 열광시켰다.

신지애가 이날 기록한 6언더파 66타는 지난해 문현희(24·휠라코리아)가 세웠던 코스레코드와 타이.

신지애는 올해 첫 대회였던 스타투어 1차대회 때 1라운드에서 78타를 쳐 65위에 그쳤고 엠씨스퀘어컵크라운CC오픈 때는 첫날 76타, 휘닉스파크클래식 1라운드에서도 70타로 13위로 밀려나 첫 라운드 부진이라는 악연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신지애는 첫날 부진에도 스타투어 1차대회 준우승, 엠씨스퀘어컵크라운CC 오픈 우승, 그리고 휘닉스파크클래식 3위 등 대회 때마다 상위권에 들어 한국여자프로골프 1인자로서 실력을 입증했다.

전반 9홀까지 2언더파로 무난한 출발을 한 신지애는 후반 10번홀에서 1m짜리 버디퍼트를 성공 시킨뒤 12번홀(파4, 353야드), 15번홀(파4, 338야드), 16번홀(파3, 143야드)에서 3개의 버디를 성공시키며 보기 없는 무결점 경기를 펼쳤다.

신지애는 "첫날보다 둘째날과 마지막 날 치고 올라가는 스타일인데 선두권에 오르면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낸다"며 "국민은행 스타투어 대회와 인연이 없었는데 도시락까지 싸들고 와 응원해준 고향 분들과 고교 후배들에게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올해 두 차례나 5위에 오르며 부쩍 성장한 김민선(20·안토니제화)이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때리며 신지애에 1타 뒤진 2위에 올랐고, 휘닉스파크클래식에서 생애 첫 우승을 경험한 지은희(21·캘러웨이)가 4언더파 68타로 3위를 달려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대회에서 올 시즌 첫 우승을 노리고 있는 박희영(20·이수건설)은 2언더파 70타를 때려 김혜정(21)과 공동 6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함평다이너스티CC서 열렸던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 우승자 최나연(20·SK텔레콤)은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맞바꾸며 이븐파 72타로 공동 16위에 머물렀다.

한편 '루키' 이정은은 홀인원 지정홀인 16번홀(파3·143야드)에서 8번 아이언으로 친 샷이 그대로 홀컵에 빨려 들어가 홀인원을 기록, 볼보 C30 쿠페승용차(3천290만원상당)를 부상으로 받는 행운을 누렸다.

2라운드는 11일 오전 7시부터 티 오프하며 Xports에서 오후 1시~3시까지 생중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희섭 8년만에 국내 복귀…몸값 15억5천만원

"아시아 홈런왕 도전"

"(이)승엽 선배의 아시아 최다 홈런기록에 도전하겠다."

미국프로야구 한국인 1호 타자 '빅초이' 최희섭(28·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이 마침내 고향 구단인 KIA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었다.

KIA는 10일 "최희섭과 계약금 8억원, 연봉 3억5천만원, 옵션 4억원 등 15억5천만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간 정재공 KIA 단장은 지난 3월 29일 해외파 우선지명 때 낙점했던 광주일고 출신의 최희섭과 수차례 면담 끝에 극적으로 계약 타결에 성공했다.

1999년 4월 고려대 2년 재학 중 계약금 120만 달러에 시카고 컵스로 입단한 최희섭은 2002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컵스-플로리다-LA 다저스-보스턴-탬파베이를 거치며 2005년까지 빅리그에서 뛰었다.

메이저리그에서 총 363경기에 출장, 홈런 40개 등 타율 0.240(915타수 220안타) 120타점, 130득점을 기록한 최희섭은 미국과 일본야구를 통틀어 해외에서 뛰다 국내에 복귀한 17번째 선수가 됐다.

탬파베이와 2년 간 총 195만 달러의 스플릿계약을 했던 최희섭은 개막전 로스터에서 제외되자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지 않았고, KIA의 끈질긴 러브콜을 끝내 받아 들였다.

최희섭은 계약 과정에서 '원하면 조건 없이 FA로 풀어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했지만, 탬파베이 측에서 느닷없이 이적료를 요구, 계약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다행히 협상과정에서 이적료 문제는 당초 계약대로 '조건없이 풀려주는 것'으로 해결됐다.

최희섭의 몸값(15억5천만원)은 미국 생활을 접고 LG 유니폼을 입은 좌완 투수 봉중근(계약금 10억원, 연봉 3억5천만원)을 조금 웃도는 것이다. 하지만 최희섭과 KIA가 체결한 옵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희섭은 귀국 즉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등록하면 곧바로 경기에 나설 수 있지만 최근 2개월 가량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여간 각종 의학적 점검과 테스트 등 컨디션을 조율한 뒤 실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희섭은 계약 후 인터뷰에서 "고향팀 KIA로 가게 돼 기분이 매우 좋다. 미국에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KIA에서 이루고 싶다. KIA의 10번째 우승을 이루는 게 목표고, 개인적으로는 이승엽 선배가 가지고 있는 한 시즌 아시아 최다홈런 기록(2003년 56홈런)에 도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희섭은 또 "이치훈 씨로부터 KIA에서 나를 지명한 것을 전해 듣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미국 프로야구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한국인 출신 타자 1호로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했는데 꿈을 이루고 싶어 선뜻 승낙할 수 없었다"고 그동안 겪은 고민을 털어 놨다.

최희섭은 정 단장과 함께 11일 오후 5시 30분 귀국한 뒤 12일 구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편 최희섭은 올초 영입을 대비해 비워두었던 '44번'을 배정받게 됐다. 44번은 송일섭 등 과거 타이거즈 좌타 슬러거가 사용했던 등번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KIA 어떤 변화 있을까?

서튼 퇴출설 '모락모락'

"서튼은 퇴출?"

최희섭의 'KIA호' 승선으로 내부 포지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용병 타자 래리 서튼의 퇴출설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최희섭은 메이저리그에서 1루수로만 뛰어온 탓에 그가 맡을 수 있는 보직은 1루수 또는 지명타자로 한정된다. 하지만 KIA의 주전 1루수 자리에는 10년 연속 3할타율에 도전중인 장성호가 붙박이로 버티고 있다.

지명타자인 이재주도 올 시즌들어 타율 0.317(4홈런)로 맹타를 휘두르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선 4할타(0.462)로 최절정의 방망이 감각을 뽐내고 있다. 이들의 자리를 최희섭에게 내준다는 게 쉽지 않은 대목이다.

그러나 서정환 KIA 감독은 "일단 최희섭에게 1루수를 맡기고 장성호는 외야수(좌익수)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감독은 또 "최근 래리 서튼의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외야 수비도 기대 이하"라면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용병투수의 영입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서튼의 방출 여부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9일 현재 타율 0.274를 기록중인 서튼은 득점 찬스의 강약 여부를 나타내는 타점이 9개(3홈런 포함)에 그치는 등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희섭, 美 진출 통산 성적

연도	팀	게임	득점	안타	홈런	타점	타율
1999	란싱	79	71	93	18	70	0.321
2000	데이토나	96	60	102	15	70	0.296
	테네시	36	25	37	10	25	0.303
2001	아이오와	77	38	61	13	45	0.229
2002	아이오와	135	94	137	26	97	0.287
	컵스	24	6	9	2	4	0.180
2003	아이오와	18	12	17	6	16	0.258
	컵스	80	31	44	8	28	0.218
2004	다저스	31	5	10	0	6	0.161
	플로리다	95	48	76	15	40	0.270
2005	다저스	133	40	81	15	42	0.253
2006	포터켓	66	35	47	8	27	0.207
메이저합계		363	130	220	40	120	0.240
마이너합계		507	335	494	96	350	0.275

■ 국내 프로야구 적응 예상 엇갈려

'타선 활력' vs '쉽지 않다'

한국인 메이저리그 1호 타자인 최희섭의 국내 프로야구 적응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02년 빅리그에 데뷔한 뒤 2005년까지 4년을 뛰며 40홈런을 때리고 120타점을 올린 용병급 타자 최희섭의 입단으로 침체된 KIA 타선에 새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완벽한 제 스윙을 찾지 못해 시행착오를 반복했던 전철을 밟을 경우 한국에서도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는 것.

기대를 거는 쪽은 최희섭의 파워를 높이 산 경우다.

최희섭은 LA 다저스 시절이던 2005년 6월12일 미네소타 트윈스를 상대로 아시아인 최초로 한 경기 홈런 3개를 작렬했고, 지난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미국전에서는 한국야구가 종가 미국을 격침시키는 데 결정적인 3점 홈런을 터뜨리는 등 장기인 대포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육중한 체격에서 우러나오는 파워는 그동안 한국야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파괴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곁들여진다.

그러나 8년 만에 돌아오는 한국 무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WBC에서 봤듯 한국 야구가 그 사이 급상승을 거듭했고 힘으로 승부하는 미국과 달리 변화구 투수가 많아 적응이 쉽지 않다는 게 비관론자들의 견해다.

WBC 대표팀에서 최희섭을 지켜봤던 김성한 전 KIA 감독과 김인식 한화 감독, 선동열 삼성 감독 등은 "최희섭의 지금 스윙으로는 한국 투수들의 변화구 공략도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편 KIA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간인 '호사방'에는 이날 하루 최희섭의 입단을 환영하는 글로 도배되는 등 KIA팬들은 '빅초이'의 합류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